

SPORTS 광주FC, ACLE 8강 진출 청신호 쾀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일본 미사키공원경기장서 비셀 고베와 오늘 1차전 K리그 유일 16강...키플레이어는 아사니·오후성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첫 아시아 무대 토너먼트에서 8강 진출을 노린다.

광주FC는 5일 오후 7시 일본 미사키공원경기장에서 비셀 고베와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E) 16강 1차전 원정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ACLE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리람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 결과 무관하게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맞대결 상대가 결정되길 기다렸다. 광주는 당초 5위로 16강에 진출하며 조호르 다를 탁집과의 경기가 유력했으나, 산둥 타이산이 ACLE에서 기권함에 따라 해당 경기가 백지화되며 최종 4위 자격으로 5위 고베와 맞붙게 됐다.

광주는 ACLE 첫 출전에도 16강 진출이란 대업을 이룩했다. 특히 올해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이뤄낸 성과다. 그럼에도 이정호 감독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안주하지 않고 있다. 목표로 언급했던 8강행을 위해 고베를 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광주에서 주목할 선수는 단연 아사니와 오후성이다. 아사니와 오후성은 각각 3골을 터뜨리며 무

효가 된 산둥전을 제외한 2025시즌 광주의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더욱이 오후성은 부리람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광주 입단 후 리그 첫 골, 리그 첫 도움을 차례대로 기록하며 기량이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새로운 공격 에이스로 거듭난 오후성은 고베전 역시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대팀 고베는 일본을 대표하는 강호다. 지난 11월 리그 스테이지 4차전 경기를 통해 거칠 것 없던 광주에게 ACLE 첫 패배를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만나본 상대와의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는 광주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더욱이 최근 양팀의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광주는 리그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매 경기 뚜렷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직전 안양과의 경기에선 짜릿한 역전승으로 승점 3점을 챙기며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고베는 리그 4경기에서 0승 3무 1패로 14위에 그치고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나 분명한 건 광주와 맞붙었을 당시 J리그 최강의

면모를 과시하던 흐름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분위기 면에선 광주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리그 스테이지 성적 또한 광주가 4승 2무 1패로 4승 1무 2패의 고베에 앞서 있다. 이에 따라 광주는 2차전을 홈에서 치를 수 있는 이점을 챙겼다. 타이트한 일정 탓에 체력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정호 감독은 ACLE를 염두해 두고 겨울 휴식기 및 리그 개막 후 일정을 운영했다. 실제로 광주는 리그 개막 이래 모든 경기에서 서로 다른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오며 선수단의 체력 안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의 목표는 ACLE 8강이다. 8강에 진출하면 유럽에서 이적할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광주FC가 ACLE 16강 1차전에서 승리를 따내며 8강 진출을 향한 청신호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아사니

이정호

KIA 스프링캠프 투수 MVP 황동하·김도현

외야수 이우성·박정우, 최우수...선수단 오늘 귀국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25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KIA는 4일 "미국 아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스

프링캠프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으로 몸을 만든 뒤 총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번 스프링캠프 MVP는 투수 황동하·김도현과 외야수 이우성·박정우가 받았다. '모범상'에는 투수 김대유가 선정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캠프를 이끈 이범호 감독은 "계획했던 연습경기를 모두 치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큰 부상 없이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고무적이다. 부족한 부분은 시범경기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최상의 전력으로 시즌을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7일 부산으로 이동한 뒤 8일 롯데와 시범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블루베이 LPGA 내일 개막...김아람·윤이나 출전

108명 컷 없이 나흘 간 경쟁...한국 선수 12명 참가

LPGA 투어 봄철 '아시아 스윙'의 마지막 대회인 블루베이 LPGA(총상금 250만달러)가 6일 막을 올린다.

9월까지 중국 하이난섬 쟈레이크 블루베이 골프 코스(파72·6712야드)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는 지난달 20~23일 혼다 LPGA 타이랜드(태국), 2일 끝난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싱가포르)에 이은 봄철 아시아 스윙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회다.



김아람

윤이나

이번 대회엔 108명의 선수가 출전해 컷 없이 나흘 동안 경쟁을 펼친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아람이 선봉에 선다.

2025시즌 개막전인 지난달 초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L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아람은 이를 포함해 이번 시즌 출전한 3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난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선 공동 7위에 오른 그는 CME 글로벌 레이스(706점)와 올해의 선수 포인팅(39점) 1위, 상금은 2위(41만 7640달러)를 달리고 있다.

이번 시즌 다른 우승자인 노예림(파운더스컵), 에인절 인(혼다 LPGA 타이랜드·이상 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HSBC 월드 챔피언십)가 나서지 않는 이번 대회는 김아람이 2승 선착을 노려볼 절호의 기회다.

다른 한국 선수 중에서는 '슈퍼 루키'로 주목받아 온 윤이나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 1위 등 주요 개인 타이틀을 석권한 윤이나는 LPGA 투어 데뷔전인 지난

달 파운더스컵에서 1, 2라운드 연속 오버파스코어를 적어내며 90위권에 그쳐 컷 탈락했다.

이후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 출전해 4위에 오른 그는 한 달 만에 치르는 LPGA 투어 대회에서 컷 통과 후 상위권 성적이 재도전한다.

지난해 부상으로 LPGA 투어에서 뛰지 않았다가 파운더스컵을 통해 복귀했으나 마찬가지로 컷 탈락했던 전 세계랭킹 1위 박성현도 이번 대회에서 받들을 노린다.

여기에 임진희, 지은희, 이미향, 이소미, 이정은, 장효준, 전지원, 박금강, 주수빈을 합쳐 이번 대회엔 12명의 한국 선수가 나선다.

세계랭킹 상위 선수로는 세계랭킹 2위 지노 티피쿰(태국), 4위 인뤼닝(중국), 7위 후루에 아야카(일본), 11위 셸린 부티에(프랑스)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챔피언으로는 지난해 우승자 베일리 타디(미국)와 2018년 우승자 가비 로페스(멕시코), 2016년 정상에 올랐던 이민지(호주)가 출전한다.

2015년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블루베이 LPGA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올해 대회엔 나서지 않는다.

연합뉴스

김연경, 7번째 MVP 오를까...허수봉-레오 남자부 경쟁

흥국생명 정규리그 1위 확정 앞장
현대캐피탈 '집안싸움'...비에나도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가 마지막 6라운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규리그 남녀부 최우수선수(MVP)로 누가 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자부에선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통산 7번째로 MVP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김연경은 국내 무대에서 여덟 시즌밖에 뛰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을 포함해 여섯 차례 MVP로 등극했다.

V리그에 데뷔한 2005-2006시즌 신인왕과 MVP를 석권한 데 이어 3년 연속 정규리그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20-21시즌과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에도 정규리그 MVP 영예를 차지했다.

김연경이 국내 무대에서 뛰는 동안 MVP를 받지 못한 건 2008-2009시즌이 유일하다.

그는 V리그에서 뛰는 마지막이 될 시즌에도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1위 확정에 기여했다.



김연경

허수봉

레오

올 시즌 총 566점을 뽑아 외국인 공격수를 빼고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6위에 이름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에선 45.87%로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연경은 이번 활약을 인정받아 올 시즌 1, 2라운드 이어 5라운드 MVP에 올랐다.

올 시즌 흥국생명팀 통합우승을 노리는 데다 선수로 뛰는 마지막 시즌이라는 절기까지 작용해 김연경의 7번째 MVP 등극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남자부 MVP 경쟁은 정규리그 1위를 확정된 현대캐피탈의 좌우 쌍포인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와 허수봉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레오는 5번째 MVP 등극을 노리는 반면 허수

봉은 첫 수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레오는 득점 부문 2위(626점)와 공격 부문 4위(성공률 53.39%), 오픈 공격 부문 1위(성공률 45.71%)에 오르며 소속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레오의 대항마인 허수봉도 득점 부문 4위(521점)와 공격 부문 3위(성공률 54.34%), 서브 부문 3위(세트당 0.37개)를 달려며 활약했다.

허수봉은 1, 2라운드 MVP를 차지해 2016-2017시즌 프로 데뷔 후 첫 MVP 상상을 노린다.

레오와 허수봉 이외의 남자부 MVP 후보로는 KB손해보험의 상승세를 이끌며 총 770점을 뽑아 득점왕을 예약한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가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여자골프 우승 황유민, 세계랭킹 13계단 상승

대만에서 승전보를 전한 '돌격대장' 황유민(사진)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세계랭킹이 상승했다.

황유민은 4일 발표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4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보다 13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 황유민보다 더 상승한 선수는 없다.

황유민은 지난 2일 대만여자골프(T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폭스콘 TL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황유민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다.

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리디아 고(뉴질



랜드)는 3위를 유지했다.

2위 지노 티피쿰(태국)과 격차를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티피쿰은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벨리 코르다(미국)가 굳게 지켰다.

고진영이 8위를 유지했고, 올해 치른 3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10위 이내에 진입하지 못한 유혜란이 2계단 하락과 함께 9위로 밀려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고진영에게 내줬다.

3개 대회 연속 '톱10'을 기록한 김아람은 3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